

AUTHOR 백성호

TITLE 루터의 개혁사상 형성기

IN 개혁신앙

vol. 19 (December, 1979): 19-22

루터의 개혁사상 형성기

그 은혜에 의해서 인간을 정의의 입장에서 용인한다.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다만 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그가 표방하고 부르짖은 「오직 믿음」이 나온 것이다.

백 성 호

(목사, 함도교회지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84)의 부친 한스 루터(Hans Luther)의 고향은 튀링겐(Türingen) 지방의 시골마을 메라(Merah)였다. 루터가 “나는 농민의 아들이다. 내 증조부도 조부도 아버지도 모두 농민이었다”고 말했듯이 그의 양친은 처음에 평야 지대인 메라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방에는 막내아들 상속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스(Hans)는 막내아들이 아니므로 자기 처 마르가레타(Margareta)와 함께 근처에 있는 아이슬레벤(Eisleben)으로 이사하여 구리를 캐내는 광산에서 광부로서 일하였다. 이일에 대하여 루터는 “내 아버지는 만스펠드(Mansfeld)로 옮겨 광부가 되었으며 나는 광부의 아들이다.” 루터는 이렇게 생애를 통하여 자기가 광부의 아들이요, 농민의 아들임을 자랑스러워 삼고 있었다.

아이슬레벤(Eisleben)에는 루터의 생가가 있다. 루터가 태어날 무렵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였다. 그리하여 그 어머니는 손수 산에 가서 나무를 헤다가 벨감으로 사용하였다. 루터가 세상에 태어날 이듬해에 그의 부친은 다시 이사를 하여 만스펠드로 왔는데 여기에서 비로써 생활안정을 얻고 성공하게 되었다. 그는 두개의 용광로를 영주에게서 빌어 작은 공장을 차렸다. 그리하여 이사한지 7년만에 네사람의 부시장 가운데 한사람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루터도 이러한 부친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덕택에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소년기가 되자 그는 라틴어학교에 입학하여 문법을 배우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우고 찬송가도 배웠다.

루터는 14세시에 고향에서 북쪽

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막테부르크(Magdeburg)의 명문교에 들어갔지만 1년후에는 어머니의 친구가 있는 아이제나흐(Eisenach)로 가서 거기있는 성 게오르크(St. George) 교구 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이 시절에 학비조달이 어려워 고생을 많이 했다. 1501년 그는 Erfurt 대학에 입학했다. 이 대학은 그당시 독일에서 제일 좋다는 평을 받았던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대학은 인문주의적(Humanism) 정신에 충만해 있었고 고전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개설되어 있었다. 루터는 여기서 인문주의자들과 사귀고 영향을 받았다.

1502년 루터는 학사학위를 받고 1505년에는 수사(修士)가 되었다. 졸업성적은 차석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그는 졸업후 이 대학에 남아서 강의를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법학공부도 계속했다.

같은해 6월에 그는 고향 만스펠드에 돌아 왔는데 이때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 7월 16일 Erfurt에 돌아온 그는 갑자기 친구들을 초대하여 작별의 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그들과 작별을 고하는 동기와 실정을 말해 주었다. 즉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Erfurt

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테투름하임(Siteturmheim) 근처에서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벼락이 떨어지자 질겁을 한 루터는 의미디 소리로 외치기를 “성 안나(St. Anna)여! 나를 살려 주시오. 그러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소” 그리하여 그는 이 서약 때문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1505는 7월 17일에 루터는 Erfurt에 있는 어거스틴파(Augustine) 수도원에 들어 갔다. 수도승으로서 그의 생활은 극히 엄격하고 고되었다. 그는 기도, 단식, 철야,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것으로 육체의 피로움을 겪었다. 그는 후에 이때에 겪은 고난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도사였고 엄격하게 수도원의 규칙을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수도에 의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 된다. 이것은 나를 아는 모든 수도승들이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렵 루터는 사소한 죄의식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수도원장을 자주 방문하여 고백하였으므로 미치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

이와같은 고되고 엄격한 수도승에 1507년 그는 사제(Priest)가 되어 미사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직권을 얻었다. 이렇게 그의 지위

는 확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의 한 구석은 안정되지 못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온 것은 서약때문에 구속되어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서약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의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의 내면의 문제는 이와같은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완전한 정의 이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명하는 바를 행하라"고 인간에게 요구하고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을것 같으면 인간을 심판하고 벌주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그는 이와같이 협박하는 하나님의 공포에서 도망쳐 나오기 위하여 수도생활에 들어가 벌을 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아져 가는 양심은 점점 더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이 괴로운 시기는 오래 계속되었다.

루터는 그후 신설된 비텐베르크(Wittenberg)대학의 교수로 초청을 받았다. 불과 25세의 나이로 그는 대학의 강의를 맡아 논리학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게 되었다. 1508년 이후 그는 대부분의 생애를 여기에 바쳤다. 이와같이 그의 외적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생활은 여전히 고뇌가 계속되었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의 건물안에 있는 탑속에서 살았

다. 여기서 사색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지만 고뇌는 떨어 버릴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때의 고뇌를 나중에 "탑속의 경험"이라 불렀다. 그러나 루터는 드디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평생토록 추구하고 율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며 풍부한 은혜를 내리시고 그 은혜에 의해서 인간을 정의의 입장에서 용인한다.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인간은 다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그가 표방하고 부르짖은 "오직 믿음"(Sola Fide)이 나온 것이다. 신앙 이것만이 오직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이고 그외의 모든 것은 은혜와 더불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하여 루터의 내면에는 새로운 하나의 근거가 생겼다. 그의 일상생활은 일반하고 그의 태도에나 언어에는 새로운 생기가 넘치게 되었다. 어느날 그가 수도원뜰의 대나무 밑에서 있을때 부수도원장 스타우피츠(Staupitz)가 루터에게 권했다. "박사학위를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사양했다. 결국 루터는 설득을 당하여 지금까지 교양과목만 강의해 오다가 신학의 전문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종교개혁자로서 발인이 유발된 계기가 되었다. 본래 루터는 철학을 강의해 왔었는데 철학 자체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틈틈이 연구해 오던 성경연구가 더욱 왕성하여 그로 신학교수로 만든 것이다. 동시에 그가 즐겨하는 설교가로서도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그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Castle Church) 설교사가 되어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 도시에는 두개의 교회 즉 성교회와 마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두교회에서 다 설교를 맡았고 그의 설교는 정열과 적절한 표현과 깊은 지식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루터의 신학강의도 많은 학생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는 교회의 전통인 라틴어 번역성경(Vulgate)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 더욱 성경원어인 히브리와 헬라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무렵 루터가 강의했던 것은 시편 로마서 갈타디아서등 이신들의의 주제로 해설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부분들이었다.

1512년 10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Wittenberg의 성교회에서는 화려하고 엄숙한 의식에 의해서 신학 박사 학위가 수여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개혁신학사상은 점점 형

성되어 갔다. 1513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이완 이유로 순위 면죄부(Indulgence)가 이지역에서 비텐베르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판매되는 방울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루터가 속하여 있는 교구에서도 살려는 사람이 나섰었다. 심지어 판매책 테체르(Tetzeler)는 "이 면죄부만 사면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범해도 용서받으며 교황의 분장으로 장식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떠들어 댔다.

이때 루터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하고 있을수 없어서 6개월을 심사숙고한 끝에 드디어 칙령을 게트리고 자기의 소신을 공개하여 전구라파에 문의해 보려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95개조의 논제이며 그때 루터의 나이는 34세였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문앞에 95개조를 제시했다. 이 행위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논쟁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질문을 전개하고 또 자기 견해를 표시하여 이것에 대한 논쟁을 구하는 학자적인 방법이었다. 제시했던 용어도 일반 민중이 읽는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였다. 어쨌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세계사의 새로운 시기를 만드는 그러한 화려한 개막이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한 일이었다.